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4월 8일(금)

(윤력 3월 8일)

Пятница

8 апреля 2022г.

№ 13 (1198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며칠 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프리스타일 2022>무용 경연이 있었다. 이 경연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흄스크,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와 아나와 구역 트로이츠코예 마을의 14개 무용단이 경쟁한 가운데 섬지역 문화예술 분야 교육기관들의 무용단들의 경연이 펼쳐졌다.

경연 수상자 중에는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 무용단들도 있다. <민속무대춤> 부문에서 <아리랑>무용단(사진, 지도교사 김 엠게니아)은 14-17세 학생 그룹 중에서 최우수상을 하고, <민달래>무용단(지도교사 최경순)은 10세 미만 그룹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사진: <에트노스>학교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올해의 교사' 주 경연 개최

4월 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022- 사할린주 올해의 교사> 주 경연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사할린의 16개 지역에서 24명의 교사들이 경연에 참가하고 있다.

경연 수상 부문은 '사할린주 올해의 교사', '사할린주 올해의 교육자', '사할린주 우수 상담교사', '장애아동 특수교육 교사'가 경연 결과 선정되며 추가 부문으로 '사할린주 올해의 디지털 교사', '교육적 창작과 영감', 지난해 경연 우승자들이 주는 특별상 '학생들의 호감'상이 있다.

올해 경연에 참가하는 교사들의 지도 과목은 영어, 지리, 러시아어, 문학, 초등학교, 수학, 체육을 비롯해 장애아 특수교육, 심리학, 유아교육 교사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참가 교사 경력은 3년 - 21년이다.

경연은 직접 참가하는 3 단계로 진행되는데 1차 경연은 '교사 - 전문성'으로 교사들은 자신의 방법론적 교육을 발표하고,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여기서 주최 측이 선정한 11명의 교사가 발표되었다. 2차 '교사 - 전문성' 경연으로 올해 교사들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수업 시간과 활동교실을 진행한다. 3차 '교사 - 지도자' 경연은 이전에 주 경연에서 진행한 적이 없는, 새로운 '교육적 협동 창작 및 효과적 방법' 단제전이 기다리고 있다. 심사위원은 전과 같이 규모, 학과목, 융통성, 학생 적합성 4가지 요소를 평가한다.

4월11일(월)에는 경연대회 폐막식에서 선정된 사할린주 우수 교사들이 발표된다.

경연 4개 부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교사들은 전 러시아 직업 전문 경연대회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

'올해의 교사' 주 경연대회는 사할린주 교육부와 공동으로 주 교육품질평가센터가 주최했다.

오로라와 아비아셀프 항공, 2021년에 순항

2021년 사할린의 항공 운항은 순조로웠다. 연방 세무청은 사할린의 항공사 오로라 및 아비아셀프의 재무 지표를 발표했다. 두 항공사 모두 2020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오로라 항공은 극동 항공사가 되었지만, 최대 자본금은 7,772,000루블리를 유지했다. 기업의 유동 자본은 149억 루블리 - 162억 루블리다.

2020년 오로라 항공의 운항 감소로 5억2천 660만 루블리 손실을 보았고, 2021년에는 388% 지표가 호전되어 순이익은 15억 루블리에 달했다. 당사는 서비스 판매로 수익을 창출했다. 2020년에는 주력 사업부문에서 15억의 적자를 냈지만, 2021년 적자는 3억9천390만 루블리에 그쳤다. 오로라 항공사는 별도의 수익이 7억7천600만 루블리 -12억 루블리까지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임금(31억 루블리에서 41억 루블리로)과 물류(113억 루블리에서 129억 루블리로)에서 지출이 증가했다.

아비아셀프 항공사도 좋은 지표를 보인 가운데 기업의 유동 자산은 7억4천170만 루블리에서 9억4천940만 루블리로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억 4천80만 루블리에서 3억7천280만 루블리로 증가했다. 항공사의 주요 지표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출이 185% 증가해 1억6천170만 루블리에서 4억6천190만 루블리까지 오른 데 있다.

2022년에 두 항공사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주로 국내 노선으로 운항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활절 전까지 사할린 주민들에게 달걀 충분히 공급

'오스트롭나야'양계업체가 산란계 마릿수를 교체한 가운데 앞으로 하루에 34만 개의 달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 정부 실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또한 대륙으로부터 달걀이 원활히 공급돼 연초부터 사할린주에서 7백만 개 이상의 달걀이 판매되었다.

주지사는 다가오는 4월24일은 기독교의 부활절로 기념하므로 달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충분한 달걀 공급이 되도록 면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주 정부는 식품 안전 문제에 특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어 매해 사할린 지역에서 육류, 유제품, 달걀 등 축산물 생산을 증대시키고 있다.

2021년 '오스트롭나야'양계업체는 3천8백 톤의 육계를 생산하였고, 2022년에는 4천 톤, 2023년에는 6천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달걀 생산도 연말까지 식약 표준에 따라 1억2천800만 개로 증산시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공급할 전망이다. 또한 산란을 위해 양계장 한 곳에 8만7천 마리의 새로운 수탉을 들여와 사육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의 채소 공급은 극동지역에서 단연 선두에 서 있는 가운데 지역 농산업체와 농장의 주요 생산품목은 온실 채소, 토마토, 오이로 현재까지 사할린 지역은 65%를 자급하고 있다.

새고려신문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현재 220여 명의 학습자 수강 중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과의 인터뷰

사할린한국교육원의 현황에 대해 본사 배순신 기자는 사할린한국 이병일 원장에게 알아보았다.

- 원장님께서 사할린에 파견되신 지 2년이 넘으셨는데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등 교육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 한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 예비교원 실습이나 교육자료 보급, 우수 학생 및 수강생, 사할린 내 한국어 채택학교 선생님, 청소년들의 한국 내 연수 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더 깊은 학습 동기를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 2월부터 교육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수강생은 몇 명이고, 어떤 교육과정이 인기가 더 많은지요?

- 2022년 2월 새 학기의 수강생은 그 이전 단계 학습자들이 대부분 연속하여 다음 단계를 수강하는 학습자와 한국어 입문반에 새롭게 들어오는 학습자들입니다. 3개 입문반에 51명이 새롭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으며 전체 220여 명의 학습자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기있는 선생님반이 있지만 비교되는 것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비정기적인 한지공예, 한국요리체험 등이 아직 운영되지 않았지만 작년의 경우, 금방 수강 희망자가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사할린동포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을 희망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따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 영주귀국을 하시는 분들 중에 2세와 배우자가 포함되고, 한국어 교육이 폐지된 후 성장했던 분들이 한국어 소통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가셨다 해도 개인적, 사회적인 외부 활동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국내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알고 가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공관과 한인 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정착 준비 과정의 한국어 코스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교재와 내용 구성 과정에서 이미 귀국하신 분들의 의견과 한국 생활 정착 경험자와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작년부터 원장님께서 세계 민속 무용반을 직접 지도하고 계시는데 강사로 만족을 느끼시는지요?

- 워낙 민속춤을 좋아해서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쉬운 춤은 흥미가 떨어지고, 조금 어려운 춤은 저도 가르치기 어렵고 배우시는 분들도 흥이 안나는 어려움이 있네요. 2021년 6월부터 민속춤반을 운영했는데, 돌아가신 허남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나요. 야외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시다가 "사할린 할머니들은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늘 어둡고 슬퍼보였는데, 이렇게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고 하실 때 많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올해 설 기념행사에서, 한국 민요에 맞춘 쉬운 춤인 '밀양아리랑'을 문화센터 무대에 올리고, 아니와의 문화행사에서도 여러 사람을 가르치며 춤추던 기억이 가장 인상적이고 보람찬 기억입니다. 하얀 눈 덮힌 아니와 해안에서 그 춤을 연습하던 장면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리랑 앙상을 단원분들이 아니면 제겐 불가능한 일이었죠. 감사드립니다.

- 올해는 사할린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이 실시되나요?

- 4월 10일 예정이던 토픽 시험은 시험지와 답안지를 배송할 방법이 없어서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7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때도 배송의 사정이 나쁘면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르지 못할 것으로 보며 10월로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할린에서 능력시험 응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대학입학 시기에 따라 한국어 능력 등급 점수가 필요한 학생도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 유학프로그램은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 유학 안내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거나 예정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온 2020년 이후 한국 내 대학 유학을 지원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장학생이나 국가 장학생, CIS지역 재외동포 장학생도 현재까지 사할린 출신 학생은 선정되지 못해서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해 교류나 유학 의지가 많이 꺾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사할린 한국어교사창작 협의회 (회장 배영희)와 공동으로 사할린 주내 여러 지방에서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사업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 2월에 그런 마음을 밝히긴 했는데, 3월 내내 제가 한국에 비자문제로 출장 중이었고,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복귀했고, 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이제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이 불안정하고 유동적입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지원하고 추진해 봐야한다고 생각해요.

- 보통 5월 말에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끝나고 수강생들을 위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작년에는 여름방학에도 일부 문화반들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떠신지?

-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가는 분위기라서 충분히 1~3강좌를 운영해도 좋을 듯합니다. 작년처럼 글쓰기와 민속춤, 한지공예, 요리체험 등

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새고려신문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님께서 동포 귀국자들을 위해 교재를 기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예, 지난해 11월에 영주귀국하신 사할린 한국어교사 전영희 선생님이 다급하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교육원과 유치원, 한글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정착하신 김포의 동포 회장님께서 한국어 수업을 부탁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가까스로 공간을 마련하긴 했는데, '교과서가 없다'며 '어떻게 구하면 좋겠냐' 문의하셔서, 정착을 돕던 대한적십자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십자가 알아보니 사할린에 한국어교재를 보내는 기관이 한국에 정착한 분들에게 공급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고 서운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몇 권 가져가 보겠다 하여 지난 비자갱신 일 시귀국 때 1-1단계(아주 초급이죠) 교재 10권과 다른 교재 1-2권을 가져가서 드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KBS 한민족방송 측에서 교과서를 지원할 곳을 찾겠다 하였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여 마음이 놓입니다. 전 어떤 교과서가 좋을지 몇 권 교재를 사진으로 보내 드릴 생각입니다. 정착하신 2세 동포들이나 오랫동안 한국어 사용을 안해 본 분들에게 한국어 교육 문제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적십자사나 외교부에서도 이번에 처음 관심을 가지신 듯해요. 코로나19 상황이라 지역 복지관 등에서 모든 강좌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봅니다. 한국어를 구사는 하지만 읽고 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체계적으로 모

국어를 배우고 싶어하십니다.

- 원장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가 계실때 KBS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50주년 행사에 초대되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할린동포분들과 만나신 소감은 어떠셨는지?

- 사할린에서 듣기만 했던 1세대 원로 어르신들을 직접 뵈니, 내가 어렵듯이 알고 있던 사할린의 지난 역사가 눈앞에 막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고려신문 사장님이셨던 안춘대 선생님, 또 사할린 한국어교육의 산증인 박승의 교수님과 공노원 선생님을 직접 처음 뵈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허남훈 선생님 생각도 나더군요. 제가 중학교 때 밤늦게 라디오를 듣다 보면, '사할린에서 온 편지'들을 읽는 방송들(사회교육방송)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절박하게 가족을 찾고 고국을 그리워 하시던 내용과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산가족만 양산'해 내고 있는 정책이 의아하고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인기있는 가수분들의 사할린 방문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저명한 문화예술인들과 K-POP 가수들이 다시 사할린을 찾아, 고국에 돌아올 수 없는 동포와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젊은 한인동포 세대를 격려하는 큰 행사가 재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교류에 폭마른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아직은 불안정합니다.

- 비싼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 예전의 블라디미로브카 동네를 둘러볼 수 있다

주 중심도시 140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로브카, 시간여행> 설치미술 전람회 개장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방문객들을 초대한다.

전람회는 이 지역 주민들의 본연의 생활용품, 수공예품, 전통적 장식의 러시아 오두막을 소개한다.

설치미술 전람회는 19세기 말 정착민들의 생활양식과 주변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예상하는 바를 토대로 한, 미래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시작점이었던 '예전의 블라디미로브카'의 거리를 둘러보게 한다.

이 전람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미술학교 교사들 및 학생들과 공동으로 가가린 시 문화휴식공원의 전문가들이 조성하고, 주 문화관광청과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관광센터, 주 향토 박물관, 주 미술박물관, 시네고르스크 역사박물관이 주최했다.

전람회 개장은 4월 8일(금), 18:00 아동미술학교 전시실(주소: 위크잘나야 거리, 5a)에서 열린다.

전화 문의: 8(4242)72-17-55. 입장은 무료이다.

Южно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рогуляться по старой Владимировке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риглашают на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инсталляции "Путешествие во вре-

мени. Владимировка", посвященной 140-летию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Экспозиция знакомит с аутентичными предметами быта поселенце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ым искусством, русской избой с её традиционным убранством. Инсталляция позволит ощутить атмосферу и бытовой уклад жизни поселенцев конца XIX века, прогуляться по улице "ранней Владимировки", с основанием которой, как принято считать, и было положено начало будущему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Выставка сформирована учениками 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де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вместно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В числе организаторов — департамент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 музей истории села Синегорск.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состоится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дет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8 апреля в 18:00. Гости ждут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Вокзальная, 5а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ДХШ).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72-17-55.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동계 수영 국제 선수권대회에서 사할린 주민들 10개 상 수상

페트로자보드스크에서 열린 동계 수영 대회 결과 사할린 대표 참가자들이 은메달 2개와 동메달 8개를 획득했다. 코르사코브의 이완 월코브(13세) 선수는 평영 50m코스에서 3위를 차지했다. 알렉산드르 루사코브(17세)는 자유형 100미터에서 1개 동메달과 릴레이 종목에서 2개의 동메달로 총 3개의 동메

달을 따냈고, 홈스크의 아나스타시아 바르토와(14세)는 평영 25m 및 50m 종목에서 은메달을 2개 따고, 자유형 25m에서 동메달을 땀다. 홈스크의 빅토리아 스파스카야(15세)는 평영과 접영 25m코스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알렉산드르 카르포브(57세)는 자유형 100m코스에서 동메달을 땀다.

사할린의 청소년 수영 선수들은 매일 2회, 일주일에 14번의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3회 정도 차가운 물에서 수영 훈련을 하기 위해 프리고로드노예 바닷가로 간다.

이번 선수권대회에 연령 10세부터 85세까지 러시아, 벨라루스, 몽골,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에서 온 전문 스포츠인을 비롯한 아마추어 38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5m, 50m, 100m, 200m코스에서 경기를 치렀다.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чемпионате по зимнему плаванию сахалинцы заняли десять призовых мест

В Петрозаводске по итогам заплывов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две серебряные и восемь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ей. 13-летний Иван Волков из Корсакова стал третьим в брассе на 50 метров. Его 17-летний земляк Александр Русаков заработал три бронзы – в стометровке вольным стилем и двух эстафетах.

14-летняя Анастасия Бартова из Холмска взяла два серебра – в брассе на 25 и 50 метров, а также бронзу на 25-метровке вольным стилем. 15-летняя холмчанка Виктория Спасская стала обладательницей двух бронзовых наград – в 25-метровых брассе и баттерфляе.

(8면에 계속)

사할린주 한인협회 소식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마련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내 사할린동포 1세들을 위한 의료상담실에서 신경외과, 안과 및 심장내과 전문의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의료상담실을 1층으로 옮겨 수리를 하고 있다.

동시에 한인문화센터 1층에 한인 1세들이 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개건작업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장비를 구입하는 중이라고 주한인협회 박순옥회장이 전했다. 경로당은 4월 말에 열 예정이다.

주 한인협회, 네웰스크 1세 동포들을 위한 의약품 전달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이미 한 달 동안 지방을 돌아다니며 1세분들을 위한 약품과 필요한 식품들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5일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네웰스크시를 방문해 네웰스크시한인회 김희철 회장에게 1세 열두 분들을 위한 의약품을 전달했다.

이날 박 회장과 함께 인사할 겸 신임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 내외가 네웰스크를 찾아가 지방한인회 임원, 전 네웰스크 시장 박 블라디미르, 주 태권도 협회 임원 등을 만나 동포 사회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람, 같은 사람' 화합 축제 개최

4월 2일은 '세계 자폐 인식의 날'(전 세계에서 자폐 장애 인식 개선을 촉구하도록 지정된 국제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사람, 같은 사람' 축제에 대해 주요 행사의 주최자인 <열린 마음> 장애아 부모 사회단체 협력위원회 위원인 안나 카라쇼와와 이 나탈리야가 설명했다.

"행사를 며칠간에 걸쳐 진행하는 가운데 토요일에는 아이들이 가린 문화휴식공원에서 놀며, 놀이기구도 탔고, 일요일에는 요리사의 지도로 닭고기가 들어간 햄버거와 밀크셰이크를 만들어 먹었으며, 자폐아 부모를 위해서는 심리적 언어발전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들과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이 나탈리야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자폐아 특수교육과 이 아이들에게 사회적 습관을 점목시키고, 가족과 사회에서의 적응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사람, 같은 사람>축제의 주요 과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와 사회생활에서 장애아들을 적응시키도록 설명하고, 이런 장애아를 꺼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라고 이 나탈리아 위원이 강조했다.

이 행사에 대해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런 행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거부감이나 무시당함이 없이 아이들이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끼리는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따라서 이런 행사는 참 유익하다고 말했다.

자폐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아우토스' 즉 '삼(스스로)'이란 말에서 유래됐다. 말하자면 아이가 자기를 자기 안에 가두는 것으로 주변 세계와 담을 쌓아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현실과 단절되며, 현실에 적합하게 반응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람, 같은 사람>행사를 진행하며 5일에는 아이들이 사할린 서비스 기술학교를 방문하여 견학하고, 정신지체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신PD의 K 리포트]

'고령화(高齡化)'와 '장수(長壽)'

'돈, 건강, 그리고 할 일'

정년퇴직하고 몇년 보내신 선배 한분이 노년 행복의 조건으로 말해준 것들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주머니 여유, 원하는 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체력, 그리고 정기적인 소일거리가 있다면, 출퇴근할 직장도 없어도 '늙음'이 행복하더라 하시더군요. 굳이 정년퇴직한 선배분의 경험담으로 듣지 않아도 이것은 충분히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돈 있고 건강하면 일이야 만들어서 해도 되고 (또 개인 선택으로 아무일 안하고 그냥 지낼 수도 있고), 이런 삶의 조건들로 행복을 얻는 것이 어찌 노년 시기 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평균적인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 대선후보 TV토론회를 거론하는 것은, 마치 차려놓은 지 오래된 밥상을 대하듯 식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아 있는 장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몇번째 대선후보 TV토론회였는지 확실하진 않은데, 토론이 오가는 중에 한 후보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라고 하자 다른 후보가 '고령화 시대가 아니라 장수 시대조'라고 맞받아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고령화(高齡化)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공식 용어입니다. 이것을 '장수(長壽) 사회'라고 표현하면 우리 뇌리에 들어와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사뭇 달라집니다. 한쪽은 쇠잔하고 무거우며 석양의 어두움이 감도는 느낌이라면, 다른 쪽 '장수'는 활력, 생명, 그리고 역동성마저도 그려집니다.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지금의 상황을 '고령화'로 칭하면, 뭔가 숙제를 받아든 듯 해결책을 채찍 받는 기분이 듭니다. 반면, '장수'라고 하면, 행복에 행복을 더하는 그런 느낌이 들며, 더 질 좋은 복지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고령' 보다는 '장수'라고 하는 것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바람직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처한 노인분들의 현실이 표현 하나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전체의 16.5%로 853만 명입니다.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산한 전국의 '폐지 좁는 노인'의 수는 7만여 명입니다. 노인 100명 중 1명 남짓한 비율로 버려진 종이를 모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우울한 통계도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자살률 1위가 한국이고, 이는 전체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2.9배 높습니다. 이 통계들을 보고나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노년층의 일반적인 문제들 - 신체 능력 저하, 무력감, 소외감 - 의 현실화된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오명(汚名)은 문제의 총체적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한국이든, 자살률이 매우 낮은 터키, 그리스, 멕시코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런 나라들이 특별히 연금 제도나 노인 복지가 훌륭하다고 들어보지 못했기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자살률은 매우 낮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순위에서 겨우 1,2,3위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유추하건대, 이 나라들에서는 노인들이 역할의 상실에서 빚어지는 무력감,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정을 얻지 못하는 고독감 등의 심리적인 위태로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돈, 건강, 할 일'이 노년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힘겹게 버티며 키 보다 훨씬 높게 쌓인 폐지 더미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노인분의 얼굴에 불행의 그림자는 없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 차를 출발시킬 수 있어도, 재촉하지 않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건너지도록 배려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이 이분들의 행복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약해진 신체적 어려움을 배려하고, 살아온 삶에 존중을 보여드리고, 사회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드리는 마음들이 '장수(長壽)' 시대에 행복을 높이는 바른 길입니다.

'고령화(高齡化)' 시대라는 다른 후보의 말을 끊고 '장수(長壽)' 시대로 고쳐 말했던 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한 자릿수 득표에 그쳤습니다. 이 후보의 깊은 뜻을 대통령 당선인께서 잘 전달받아 노인복지 정책에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 건강, 할 일'이 없어도 대한민국 어르신들 모두 행복이 뽀뽀 솟아날 것입니다.

신원섭 (KBS 라디오 편성기획국장.
shinwonsup@kbs.co.kr)



재외동포재단, 국립국어원과 업무협약 체결

-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든든한 지원 협력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양 기관 간 전반적인 협력 토대 마련을 위해 식목일인 4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 교육사업부 박준희 부장, 권소정 대리,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 정회원 어문연구실장, 김진엽 한국어진흥과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한글학교 한국어 수업을 위한 콘텐츠 공유 및 교육자료 개발 협력 ▲한글학교 교사의 한국어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한글학교 발전을 위한 협업 방안 발굴 등 공동 협력 사항을 정하고, 상호 노력할 예정이다.

김성곤 이사장은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처럼,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이 더욱 발전되고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교사의 한국어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사의 교수 능력을 인증할 프로그램(가칭 K-teacher프로그램) 개발을 계기로 이번 MOU를 추진하게 되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재외동포재단, 전 세계 한글학교협의회와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간담회 개최

3.15(화), 3.22(화), 3.31(목) 3차례 나누어 지역별 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 협의 및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글학교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별 한글학교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전 세계 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들과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별 시차를 고려해 3월 15일(화), 3월 22일(화), 3월 31일(목)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북미·중남미·아시아·대양주·유럽·CIS·아프리카·중동 등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임원과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동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수업 활성화와 대면수업 재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휴교학교 증가와 학생 수 감소, 교사수급 문제, 방역

물품 구입 등 지출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알리으면서 재단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특히, "휴교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회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며, "정기적으로 협의회 임원진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재단 사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한글학교협의회와 재단 간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한글학교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параде в честь 110-летия Ким Ир Сена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свыше 7 тысяч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еул, 26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различные масштабные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случаю 110-летия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своего покойного лидера-основателя Ким Ир Сена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сообща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Север проведет крупный весенний фестиваль в Пхеньяне с магическими шоу 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трупп примерно в середине апреля, чтобы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Ким Ир Сена, деда нынешне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15 апреля,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Фестиваль вдохновит нас на наш мощный марш и поможет сделать этот значимый год революционным годом празднования», — также заявила главная газета Севера Rodong Sinmun.

В этом году Пхеньян проведет еще один круп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искусств онлайн на фоне опасений COVID-19. Апрельский весенний фестиваль искусств дружбы, который начался в 1982 году, является двухгодич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которое приглашает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труппы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отпраздновать день рождения покойного основателя.

Годовщина рождения, называемая на Севере Днем Солнц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крупнейш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аздников страны. Север, как правило, отмечает каждую пятую и 10-ю годовщину масштаб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включая военные парады.

Ссылаясь на коммерческие спут-

никовые снимки Planet Labs, Радио Свободная Азия (RFA) сообщило, что Север, похоже, продолжает подготовку к массовому военному параду.

Изображения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в аэропорту Мирим в Пхеньяне было мобилизовано от 600 до 650 грузовиков, что более чем в четыре раза превышает количество грузовиков, замеченных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сообщает вашингтонское новост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оценкам, Север мобилизовал более 7500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готовясь к параду, добавило о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 за действиями Севера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Пхеньян обычно делал для предыдущих ключевых юбилеев.

«Мы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м за развитием событий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показателем военного парада, учитывая общую ситуацию, включая прошлые действия Севера в аналогичных случаях и то, что объявил Пхеньян, а также признаки, обнаруженные нашими военными»,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журналистам на условии анонимности.

Север также, похоже, планирует круп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этом году в явном стремлении укрепить внутреннее единство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давления от последствий глобальных санкций и пандемии COVID-19.

В 2020 году Север отменил почти все крупные празднования годовщины рождения лидеров на фоне пандемии.

Прогноз погоды на завтра. Сахалин отметился в корейском сериале

«Если вы любите корейские драмы, то смотрите внимательно новый сериал», — с таким призывом смело могли бы обратиться создатели фильма «Прогноз погоды и любви» (режиссер — Чха Ён Хун) к своим зрителям со всего мира. Часть событий этого сериала происходит в офисе Национальной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ой службы, где есть, как и в любой мелодрама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она (Джин Ха Гён — так зовут главную героиню) и он (синоптик Ли Ши). Герои работают вместе, но молодых людей больше волнует погода и природные катаклизмы, чем чувства, которые внезапно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между ними.

«Промежутки между временами года так коротечны и так трудно бывает подобрать нужную одежду», — говорит один из героев о смене сезонов. Но в сериале не только разные лики погоды — это еще и времена любви, в которой есть проливные дожди и затяжная жара.

Первые серии этого фильма появились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интернета в середине февраля, но у киноистории уже есть свои поклонники, заметившие, что на экране часто мелькают изображения направления сильных ветров и иных стихий на картах. А уже во второй серии «служебного романа», наряду со специальными выражениями «высота и отклонение волн», «дрейфы и скорости ветров», «разница температур», в речи героев появляются и такие слова, как «Сибирская воздушная масса», «северная часть Тихого



Кадр из сериала «Прогноз погоды и любви»

океана» и «Охотское море».

Именно с севера, как когда-то в мае 1978-го и в апреле 2010 годов, должны прийти шквальный ветер и сильный дождь — в этом убеждены сотрудники офиса Национальной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ой службы, и об этом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узнают все герои сериала. В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обсуждается очередной прогноз погоды, на экране вновь появляется карта, на которой отчетливо просматриваются очертание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Конечно, корейские зрители сериала подспудно знакомятся в этой киноистории и с работой синоптиков, и с тем, какие регион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хвачены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м метеофронтом. Однако и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восточного кино из России в сериале, очевидно, найд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одтекст, значение которого или уместится в один эпизод, или разовьется дальше. Но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досмотреть сериал до конца.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В этот день в городах и весях загорятся бумажные фонари

Сеул, 2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После дву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масштабный парад фонарей возобновится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освещения фонарей, внесенного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ежег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в честь дня рождения Будды,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Орден Джогье, крупнейшая буддийская секта страны, заяви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парад начнется в 7 часов вечера 30 апреля по обычному маршруту в центре Сеула от ворот Хунгинджимун до Чонгака.

Известный как «Yeondeunghoe»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в честь дня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в восьмой день четвертого месяц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н был включен в список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человечества ЮНЕСКО в 2020 году. Но массовый парад был отменен в том же году и был сокраще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з-за пандем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дена Jogye заявили, что решили возобновить ежегодный парад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рогими протоколами COVID-19, поскольку ослабление прави-

тельством некоторых правил, связанных с вирусом, открыло путь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крупных религиоз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ервым событием станет церемония освещения большой скульптурной лампы, установленной на общественной площади перед мэрией Сеула. Скульптурная лампа сделана из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бумаги, или «ханджи», в форме трехэтажной каменной пагоды в храме Хвайом, расположенном в Гурье, в 422 километрах к югу от Сеула. Церемония зажжения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с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на YouTube-канале фестиваля.

Основные программы, включая культур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возвращающихся с ежегодного парада фонарей, пройдут с 29 апреля по 1 мая.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1 мая в храме Джогь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тенды,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ят посетителям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ытать изготовление бумажных фонарей лотоса и поиграть в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игры. День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приходится на 8 мая в этом году.

Одноразовая посуда объявлена вне закона

Сеул, 3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дноразовых предметов, таких как одноразовые пластиковые стаканчики и столовые приборы, запрещено в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ах Южной Коре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ым экологическим регламентом, который вступил в силу с апреля,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Yonhap.

Это знаменует собой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закон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против одноразовых стаканчиков, который впервые вступил в силу в 2018 году. Его применение было временно отменено в начале пандемии COVID-19 в 2020 году на фоне опасений в том, что многоразовая посуда для кафе может стать источником 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Однако министерство решило вернуть его. Согласно последнему постановлению, 18 одноразовых предметов, включая однора-

зовую посуду, столовые приборы, зубочистки и пластиковые скатерти, теперь запрещены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ах.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ам также запрещено бесплатн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пластиковые или другие одноразовые пакеты, кроме бумажных пакетов.

Несколько новых предметов, таких как пластиковые соломинки, палочки для перемешивания и бумажные стаканчики, войдут в список запрета 24 ноября,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рушени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штрафам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частоты нарушений и размера заведений, 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заявило, что планирует полагаться н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указания и инструкции, а не штраф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облюд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до тех пор, пока ситуация с пандемией не утихнет.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Волонтеры помогли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го села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к стоматологу

Сельчане из Успен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рассказали волонтерам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что з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ью им приходится ездить в райцентр. Добровольцы оперативно передали запрос жителей в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здрав. Сегодня в село прибыл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комплекс.

Напомним, что волонтеры совершают поквартирный обход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бровольцы,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и активисты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принимают заявки на подключение к газу, записывают на углубл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помогают решать другие насущные вопросы, волнующ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дной из таких решенных проблем стало обращение жителей села Успенского.

Несмотря на запрос со стороны сельчан, очередей в моби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не было — все пациенты заранее записались на прием, каждый пришел к своему времени. Единственное исключение — пятеро ребят из детского сада, которые решили проверить зубы перед поступлением в школу. Кому первым идти на прием, быстро определили с помощью детской считалочки.

— Ребята прошли осмотр, и теперь родителям не нужно ехать в Аниву к стоматологу. Специалист сразу определила состояние полости рта, двум ребятам сделали профилактику кариеса. В основном сегодня приходили взрослые пациенты. В моби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можно провести санацию полости рта, лечение или неосложненное удаление зуба,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Анивской ЦРБ Наталья Красных.

Передвижной кабинет оснащен всей необходимо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аппаратурой.

— График выездов составляется и доводится до фельдшеров ФАПов и сельских старост, чтобы люди могли заранее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директор лечебн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Мила Тен.

Все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отдаленным населенным пунктам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курсируют 45 моби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Это не только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ие машины, но и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ие и лаборатор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передвижные установки.

Последняя поставка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была осуществлена в 2021 году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ействие этого 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ся и в этом году —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иобретение новой аппаратуры, проведение капитальных ремонто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а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работу волонтер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етил частный секто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еле Лиственничное, дома в котором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ут газифицированы, и проверил ход работ по ямочному ремонту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 эт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сейчас сосредоточено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волонтеров.

Волонтеры «Единой России» проводят обход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возможностя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обровольцы информируют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о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помогают записаться на углубл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принимают заявки на подключение к газу.

За две недели волонтеры обошли в одном только Лиственничном 630 домовладений.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уже с подводами к газопроводу, владельцы 260 домов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ы с Газпромом, остальные ждут оконча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дводов.

— Дом у нас большой, отапливаем отработкой. Это, конечно, не экологично и в быту неудобно. Ждем подключени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волонтерам, всё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и — о порядке действий по подключению, о субсидиях на газификацию. На днях обратимся к специалистам,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Лиственничного Оксана Бычков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рассказал семейной паре о различ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 Для тех, кому за 65, мы организовываем подробное медобследовани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пенсионеры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ют спортивные учреждения, театры, музеи, обучаются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По карте сахалинца люди получают скидки в магазинах и аптеках. Обо всем этом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ывают волонтеры, кроме того, они могут выслушать человека, если у него, например, нет доступа к соцсетям, и передадут суть проблемы в конкретное ведомство,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волонтеров со сходом снега стал и обход дорог и дворов. Добровольцы наряду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обычными горожанами сообщают о повреждениях асфальтового полотна через сервис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рофильные ведомства сразу берут информацию в работу.

На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ах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лощади 58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уже выполнен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литым асфальтом.

— Синоптики на неделе прогнозируют повышение температуры, поэтому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две подря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начинают работать традиционным способом — устранять дефекты будут горячим асфальтом. Мы благодарны всем, кто сообщает о выбоинах, спасибо волонтерам и горожанам, — доложил главе регион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Боровик.

Масштабный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дорог и двор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лжны провести за 2,5 месяц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поручение —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у ко Дню России, 12 июня.

Напомним, обход волонтер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начался в марте и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есь апрель. Узнать их можно по фирменным жилетам с именными бейджам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обровольцы хорошо показали себя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списков дворов и дорог,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ремонте. В этом год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ривлечь волонтеров и к реализации областных со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скаетс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проект для помощи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м семья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Юрий Им обратился к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с инициативой об адресной помощи сахалинца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ал эту идею. Проект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выявит самых щедрых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и позволит поддержать волонтерское движение на островах.

Губернатор накануне провел прием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граждан. За помощью обратилась мама четверых детей.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окажут семье помощь 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и оформлении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ат. Также женщина поделилась, что у нее вышли из строя холодильник и стиральная машина. Приобрести бытовую технику для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и предложил бизнесмен Юрий Им, который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встрече.

—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живут неравнодушные люди. На островах сильны традиции меценатства, мног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 публично или нет — участвуют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инициативах. Я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ен каждому из них. Среди людей, живущих в бедности, большинство тех, кто не делал такого выбора. Это люди с проблемами со здоровьем, в семье, просто люди с тяжелой судьбой. И им всем нужна поддержка. Зачастую возмож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в вопросах прямой помощи ограничены.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ресурсами, но и полномочиями. Но меценаты могут действовать более гибко, опираясь только на свой моральный компас,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проект позволит скоординировать действия людей,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помощи, и меценатов, которые желают оказать им адресную поддержку. Характер помощи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ся, исходя из насущ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той или иной семьи — купить продукты, собрать детей в школу, приобрести мебель и бытовую технику.

— Ситуация в мире сложилась непростая, и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м семьям сегодня вдвойне тяжелее. Я знаю м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ю и особо это не афишируют. Мне кажется, нужно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чтобы показывать добрые дела, тогда примеру бизнесменов-меценатов последуют многие. Сейчас такое время, когда особенно нужны люди, готовые помочь, — отметил Юрий Им.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прием заявок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мая по октябрь этого года.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социальные практики 2021-2022 годов. Оценивать значимость инициатив будет экспертная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состоящая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лидер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В финале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определят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на всенарод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омогли жителям Дальнего разор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ей

Жильцам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исключения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из-под управления недобросовестной компании и сделать выбор в пользу друг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ащитить свои права сахалинцам помогли специалисты Госжилинспекц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ручение руководству ведомства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и дальше готовы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жителям, которые недовольны работой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С каждым случаем разбираем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 Если не действуют штрафы, договор необходимо расторгнуть и помочь людям подобрать добросовест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28 марта, жители улицы Ударная пожаловались губернатору на ра-

боту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и «Содружество» — снег не убирается, мусор не вывозится, за подъездами следят плохо. Узнав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требовал оказать жителям домов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обраний собственников жилья и смены управляюще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 словам губернатора,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получают с людей деньги, а значит обязаны выполнять свои услуги с должным качеством. Если этого не происходит, люди имеют право разорвать с ними договорные отношения, а местные и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омогут с этим.

На основании решений общих собраний собственников ко сегоднешнему дню большую часть домов перевели на обслуживание ООО «СНВ». Это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е на улицах 1-я Московская, Большая полянка, Крымская, Монетная, Б.П. Полевого и Байкальская.

— Жильцы должн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 выборе управляюще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ведем проверку подсчетом голосов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и примем решение о смене управляющей организации в оставшихся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Осталось буквально несколько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Работаем совместно с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Госжилинспек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стантин Истоми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н запас пропана на 1,5 месяца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нял вопрос наличия бытового газ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Через Центр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главе региона поступили обращения от сахалинцев, обеспокоенных возможным дефицитом пропана.

— Люди используют газ в бытовых целях —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пищи, для отопления, нельзя допустить его нехватки. Ситуация с наличием пропана должна находиться на постоянном контроле у всех ответственных лиц. Газ на складах достаточно до 15 мая.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должны начаться поставки по альтернативным каналам, этот вопрос был проработан профильными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чтобы жители были обеспечены пропаном и в последующем,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на складах ЗАО «Южсахмежрайгаз» — 100 тысяч тонн бытового газа, ООО «Сахалинтехгаз» — 30 тысяч тонн.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у людей возникла из-за того, что паром «Сахалин-10»,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перевозкой особо опасных грузов, ушел на плановый ремонт на месяц позже.

— Сроки окончания работ сдвинулись с 15 мая на 15 июня. Но мы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ранспорта, министерством энергетики и транспорт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проработали альтернативный маршрут. Пропан будут перевозить через Владивосток в Корсаков в специальных танк-контейнерах емкостью 10 тонн. Первые партии ожидаются 27 и 28 апреля. Следующие придут в мае и июне,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силят контроль,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выноса грязи с грунтовых площадок

Такое поручение д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сетили одну из площадок в рамках традиционного субботнего объезда.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расположен с северной стороны улицы Спортивной, неподалеку от входной группы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2020 году он был передан в аренду 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фуд-холла.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одрядчика,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здесь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в 2022 году. Поскольку участок не огорожен, посетители горнолы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его нач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парковки ли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 С наступлением тепла сахалинцы в соцсетях начали жаловаться, что грязь с этой площадки разносится на дороги города. Не надо ждать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ним уже можно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будущую стройплощадку, огородить забором, сделать всё,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вынос грязи. Люди не должны дышать пылью,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территорию огорожат уже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заканчивается и машин здесь столько уже не будет. Поэтому ничто не мешает строителям вести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Если нужны какие-то разрешения, мы оперативно готовы оказать помощь, — отмети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Строительная компания оформляет необходимые разрешения. Как только документы будут готовы, подрядчик приступит к возведению объект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территория получит офи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стройплощадки, подрядчик будет обязан соблюдать Правила обустройства и содержания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ок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 частности, для исключения выноса грязи строитель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необходимо оборудовать выезды со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ок пунктами мойки колес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с замкнутым циклом водооборота и утилизацией сток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주출신 사할린 동포들 고향 생각에 '한 맺힌 망향가'

서울제주도민회 등 안산시 고향마을 정착촌 거주하는 제주인들 위문
1세대 28명, 2세대 16명 등 44명 거주..."제주 땅 밟아보는 게 소원"
일제에 의해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 징용된 후 꿈에 그리던 제주 오지 못해
강한일 회장 "타국에 살다가 고국에 정착한 동포들은 제주도민으로 한가족"

"아버지는 고향 제주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장순자씨(86·여)는 일제에 의해 사할린 탄광으로 끌려간 아버지 고(故) 장세종씨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고인은 제주시 화북동 출신으로 광복을 맞이하고도 사할린에 계속 거주하다가 2000년 한국에 입국한 그해에 세상을 떠났다.

서울제주도민회(회장 강한일)와 경기 안산시흥제주도민회(회장 김현철)는 22일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고향마을'을 방문, 제주 출신 사할린 동포들을 위로하며 갈고리와 물품을 전달했다.

고향마을 아파트에는 484가구 749명의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제주 출신은 1세대 28명, 2세대 16명 등 44명이 살고 있다.

일제는 1930~1940년 전시 체제에 돌입하면서 얼음의 땅 사할린에 제주도민을 포함해 조선인 7만여 명을 탄광·비행장·도로·철도 등 군수시설 건설 현장에 강제 동원했다.이 중 절반은 극심한 노동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일제의 패망으로 사할린은 옛 소련에 반환됐고, 이곳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본국으로 송환됐으나 4만여 명의 조선인들은 현지에 방치됐다. 광복은 됐지만 정부는 이들을 송환할 여력이 없었고,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과 옛 소련은 적대관계에 놓이면서 4만여 조선인들은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다.

이날 김현철 안산시흥제주도민회장은 사할린 코르사코프 항구에 건립된 망향의 탑 비문을 낭독했다.

"물아치는 추위 속에서 / 굶주림을 견디며/ 고국으로 갈 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혹은 굶어 죽고/ 혹은 얼어 죽고/ 혹은 미쳐 죽는 이들이 언덕을 매우건만/ 배는 오지 않아..."

비문이 낭독되자, 제주 출신 사할린 동포들은 고된 탄광 일을 하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서귀포시 상례리에서 살았던 부모가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됐다고 밝힌 임종선씨(88)는 "제주 출신 1세대들은 대부분 세상을 떴고, 2세대들도 고령이 됐다"며 "서울도민회에서 매년 체육대회마다 사할린 동포들을 불러주고 식사를 제공해 고맙게 생각



서울제주도민회와 경기 안산시흥제주도민회는 22일 안산시 고향마을아파트 복지회관에서 제주 출신 사할린 동포를 초청, 위문 행사를 열었다.

이에 강한일 서울제주도민회장은 "타국에 살다가 안산에 정착한 이들 모두는 제주도민이고, 한 가족"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 고향 방문 사업을 다시 재개하고, 서울도민회 고충상담위원회를 통해 법률과 의료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김미숙 제주도 제외도민팀장은 "제주도정은 조국의 품에 안긴 사할린 동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루 빨리 고향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사할린 동포들의 모국 방문은 1988년 대한민국과 옛 소련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영구 귀국하는 동포들을 위해 안산시에 '고향마을' 임대아파트 8동을 건립, 보금자리로 마련했다.

사할린에서 출생 후 70년 넘게 동토의 땅에 살다가 지난해 고향마을 아파트로 입주한 김재인씨(73·여)는 "아버지(김봉수)는 사할린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작고했다"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에 영구 귀국했는데 조만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울제주도민회 신현기 명예회장, 이일현 수석부회장, 이승석 상근부회장, 김미순 사회복지위원장, 강수일 사무국장을 비롯해 김순홍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도 참석해 제주 출신 사할린 동포들을 위로했다.

(제주일보)

월곡고려인문화관서 열린 한 야꼬브 작곡가 특별전 개식행사 성료

고려인 민족음악을 집대성하고 카자흐스탄 재즈음악을 개척한 한 야꼬브(1943-2021) 작곡가 특별전이 지난 2일 '역사마을1번지' 광주고려인마을 내 월곡고려인문화관(관장 김병학)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요행사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축사와 한 야꼬브씨 아내와 자녀가 보내 온 육성축하 메시지에 이어 고려인마을 마스코트 어린이합창단(단장 김혜숙)의 특별공연, 김병학 관장의 노래 속에 얹힌 고려인의 애환과 문화사적 의미 해설, 그리고 아마릴리카타빌레 하모니테라피의 기악연주와 김경림 해설사의 노래로 한 야꼬브 창작가요 2편, 고려인 구전가요 7편 '씨를 활활 뿌려라, 아이들아 놀자, 자연의 군악, 망향가, 고향의 설움, 부모 생각, 강건너 천리길, 고려아리랑' 등이 불려졌다.한 야꼬브 작곡가(1943-2021)는 고려극장 아리랑합주단 주임지휘자,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립민속악단 주임지휘자, 1991년 자신이 창단한 시립재즈악단 '빅밴드' 주임지휘자 등을 역임했고 수많은 무대음악과 록오페라, 뮤지컬 등을 작곡해 고려인 음악예술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1960년대 말에는 당시 소련 정부 차원에서 금기시하던 재즈음악을 몇몇 동료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처음으로 도입해 대중음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특히 그는 2004년 옛소련 전역을 누비며 그때까지 전승되던

고려인 구전가요를 모두 수집하여 집대성함으로써 자칫 사라질 뻔했던 고려인 구전가요를 온전히 보존하고 지켜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한 야꼬브 작곡가의 음악 인생을 조명하는 육필 악보, 증명서, 사진, 신문, 서적 등 30여 점의 자료를 전시한다.

특별전은 올해 12월까지 이어지며(월요일 휴관), 오전 10시, 오후 2시 방문객은 전문해설사의 자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단체관람객은 월곡2동 마을해설사들의 안내를 받아 고려인마을과 문화관을 탐방할 수 있다.

김병학 관장과 김경림 해설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김순홍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 장원창 전 사할린한국교육원장, 한희원 미술관장, 성심은 전남대 명예교수, 김양숙 광산구복지정책과장, 채와라 다문화팀장, 박경훈 이북5도위원회광주사무소장, 달빛마을문화탐방 최창인 대표, 정진산 마을해설사 대표, 임용기 흥남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 홍보국장, 정미정 월곡2동지사협의회장, 마을해설사 이순옥, 송주영·노윤정·이미자·최경화, 그리고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와 김블라디미르 전 우즈베타쉬켄트 대학 러시아문학부 교수, 고려인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다.

자세한 안내는 월곡고려인문화관(062-955-19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한국타임즈】

[우리말로 깨닫다]

신어 유행어의 세계, 언젠가는 지나간다

2020년은 20이 두 번 반복되어 웬지 기분이 좋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본이 하계 올림픽을 그 해로 유치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시작은 끔찍했습니다. 코로나가 급속도로 펼쳐지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는 19라는 숫자가 붙어있지만 일반인의 인식 속에는 코로나라고 하면 20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탓에 2020년에 동경 올림픽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 하나 줄어들었고, 2020년에 맞추어 준비해왔던 수많은 일이 어그러졌습니다.

2021년에는 통째로 기억에서 사라진 느낌입니다. 수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1년 미루어진 동경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 하고 힘들어 하며, 하루하루를 지낸 해로 기억이 될 겁니다. 코로나 시대의 한 가운데인 셈입니다. 피시알 검사에 의한 확진자 수가 매일 발표되고, 자가격리자의 뉴스가 매일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 주기에 의한 영업시간 단축이나 모임인원 제한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배달이 늘고 거리에는 오토바이 천지입니다. 비대면이 익숙해지고, 때로 편안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zoom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네요.

2022년은 2가 세 번이나 들어가는 해이기에 웬지 기분이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중국은 숫자의 상징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는 8입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8일에 북경 하계올림픽을 열었습니다. 2는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2는 우리말로 둘인데, 둘은 함께하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짝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대학에서는 22학번을 둘리 학번이라고 합니다. 둘과 2(리)를 합친 표현입니다. 아기공룡의 이름을 딴 것이어서 그런지 귀여운 느낌이에요. 2022년 2월 22일은 2가 여섯 번 들어간 아주 특이한 날이었습니다. 특이한 것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몇 년 사이에 새로운 말이 많아지고, 유행하는 말이 확 바뀌었습니다. 단기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의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우선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새로 들어온 말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만 쓰이던 전문용어가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한참 동안 코로나를 '콜레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콜레라의 괴로운 기억을 소환했거나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확진자라는 말은 확진자라는 신어를 만듭니다. 집에만 있어서 살이 쪼다는 자조 섞인 표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표현도 끔찍한 표현입니다. 가족이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는 시간이 몇 년 동안 흐르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축하하지 못하고, 누가 돌아가셔도 함께 슬퍼하지 못합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델타까지는 알겠는데 오미크론은 도대체 뭐가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은 나중에 이 시대를 회고할 때 중요한 단어가 될 겁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말 자체가 오래 쓰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델타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신어와 유행어는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표현들입니다. 매년 신어와 유행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의미에서 신어와 유행어의 수명도 짧은 편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말은 다시 바뀌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은 신어의 유행이 지속되어 새롭게 사전에 담기기도 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유행했던 표현들이 어서 그때를 회고하는 표현으로 남기 바랍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 하는 표정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겁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57-летний Александр Карп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воевал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ь на дистанции 100 метров вольным стилем.

У ю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14 тренировок в неделю, по две каждый день. До трех раз в неделю проходит подготовка по холодовому плаванию, для этого ребята выезжают на море в Пригородное.

В чемпиона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388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и любителей из России, Беларуси, Монголии, Азербайджана и Казахстана в возрасте от 10 до 85 лет. Пловц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на дистанциях 25, 50, 100, 200 метров.

사할린 학생들, 전국 문학 올림피아드에서 수상

유즈노사할린스크 2호 김나지아의 알리나 마지나와 코르사코브 2호 학교의 김 마르가리타 학생이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국 학생 문학 올림피아드 결승 단계를 치르며, 상을 가지고 돌아왔다.

러시아 전역에서 9학년-11학년생 300여 명이 학생 올림피아드 문학 부문에 참가했다. 4월 2일에 모스크바 국립 교육대학에서 우승자와 수상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10학년 학생들에게는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올림피아드가 김 마르가리타에게는 두 번째로서 지난해에도 상을 수상

한 바 있다. 전국 학생 올림피아드 결승 단계는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사할린 학생 대표단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토마리, 티몴스코예, 흠스크, 레이도워 마을의 학생 24명이다. 사할린의 고등학생들은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화학, 컴퓨터 정보처리, 지리, 문학, 역사, 물리, 생활안전, 러시아어, 생태학, 체육, 세계 예술문화, 수학, 사회상식, 생물, 법률, 기술 등 19개 과목에서 올림피아드를 치르게 된다.

전 러시아 학생 올림피아드는 러시아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가 학생 수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대규모 행사로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더 큰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재능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학생 올림피아드 결승 단계는 24개 일반교육 과목에서 치르며 러시아 학생 7천여 명이 결승 단계에 진출한다. 결승 단계에서 얻은 우승과 수상은 올림피아드 실력에 따른 방면에서 국내 어느 대학에서든 무시함으로 입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Сахалински стали призер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по литературе

Учащиеся гимназии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ина Мазина и школы №2 Корсакова Маргарита Ким привезли награды из Москвы, где с 27 марта по 2 апреля проходил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по литературе.

Всего в олимпиад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300 учеников 911 классов со всей России.

2 апреля в Московск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Десятиклассницам вручили дипломы. Для Маргариты Ким это, кстати, второе успеш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в финале олимпиад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а также завоевала титул призера.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продлится до 30 апреля. В составе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24 школьник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ов и села Рейдово. Островные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участвуют в олимпиадах по 19 предметам: французскому, английскому и китайскому языкам, химии, информатике, географии, литературе, истории, физике, ОБЖ,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экологии,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МХК, математике, обществознанию, биологии, праву, технологии.

Всероссийская олимпиада — это самое массо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обучающихся, которое занимает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во всём мире. Оно позволяет выявить и поддержать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стремящихся получить знания, которые выходят за рамки шко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Финал ВСОШ охватывает 24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едмета. Всего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7 тысяч россий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обеда или призерство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дают право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без экзаменов в любой вуз страны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которо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профилю олимпиады.

Всероссийская олимпиада — это самое массо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обучающихся, которое занимает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во всём мире. Оно позволяет выявить и поддержать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стремящихся получить знания, которые выходят за рамки шко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Финал ВСОШ охватывает 24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едмета. Всего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7 тысяч россий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обеда или призерство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дают право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без экзаменов в любой вуз страны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которо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профилю олимпиады.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Реклама

-  91 ЗАВЕДЕНИЕ
-  684 200 ЗАКАЗОВ
-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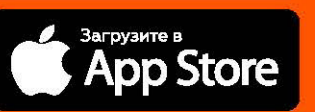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